

# 2017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

안동환 · 김관수 · 임정빈 · 장도환 · 이승훈



본 연구에서는 '2017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지표, 생산성지표를 상권, 업종, 권역, 영업형태, 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함. 또한 '18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체에게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프랜차이즈가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프랜차이즈와 독립운영업체의 개별 이윤함수 구성요소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함.

## 연구 배경

- 전년도의 '2016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연구의 연장선에서 상권, 업종, 권역, 영업형태, 서비스 유형별 경영성과지표와 생산성지표를 분석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년도의 '2016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연구에서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영성과지표와 생산성지표가 독립운영업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가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 방법

- (경영성과, 생산성지표 분석) '2017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과 종사원/신고면적당 매출액을 상권, 업종, 권역, 영업형태, 서비스 유형별로 집계하여 비교함.
- (최저임금 인상 영향분석)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16.4%)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 1.2배 수령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인상에서 6.5%('17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상승률)까지 임금인상률이 점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1.2배 이상 수령 근로자는 '17년도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상승률인 6.5%만큼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가정함.
  - 이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임금이 상승했다고 가정한 후, 베이스라인인 6.5% 인건비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을 계산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의 것을 차용한 것임.
- (프랜차이즈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프랜차이즈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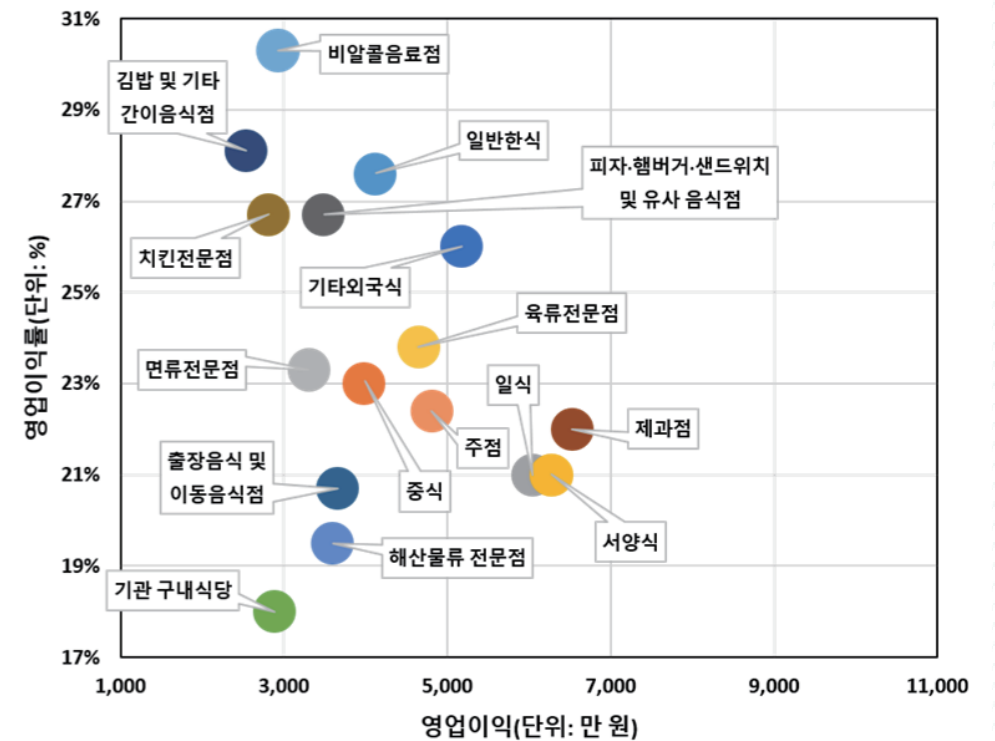
요인을 여타 요인(상권, 업종, 권역, 업체 규모)와 분리하여 측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여 매칭된 샘플 간 경영성과를 비교함.

- 성향점수매칭에는 상권, 권역, 업종, 경영주 연령, 초기 인테리어 비용, 종사자 수, 사업장 신고면적을 이용함.
- 로짓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접매칭을 시행하되, 매칭되는 샘플의 종사원 수와 업종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규모(종사원 수)와 업종의 효과를 보다 강하게 통제함.

## 경영성과, 생산성지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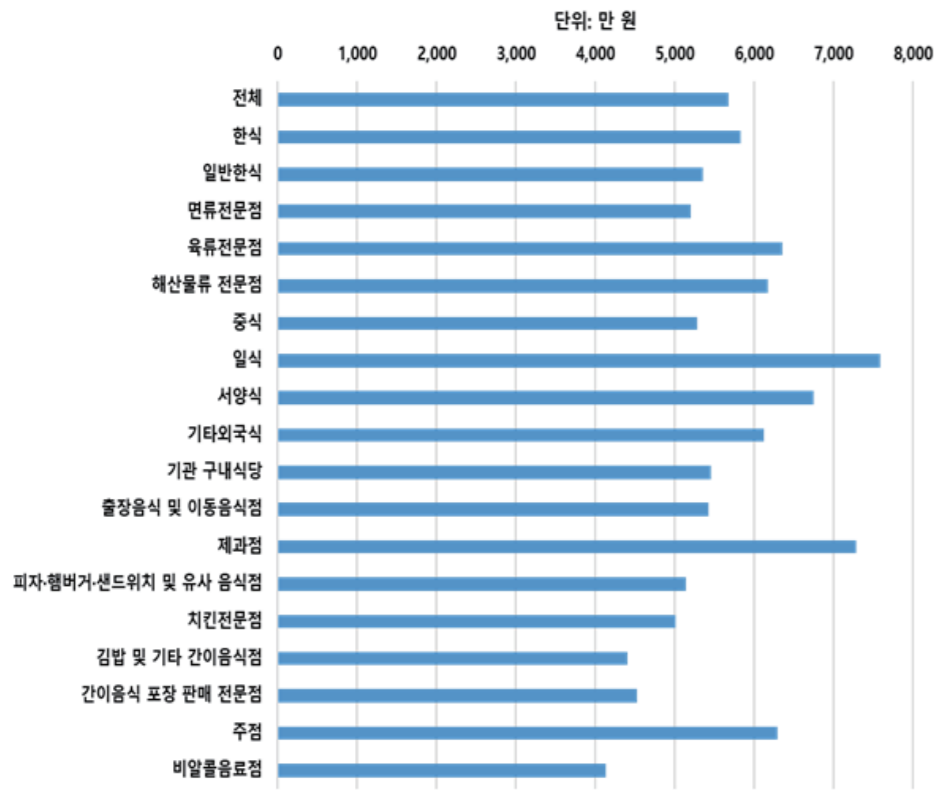
- 제과점(6,525만 원), 서양식(6,274만 원), 일식(6,043만 원)업종의 영업이익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알콜음료점(2,928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2,531만 원), 치킨전문점(2,815만 원), 기관 구내식당(2,888만 원)의 경우 영업이익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업종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 일식(7,581만 원), 제과점(7,277만 원)에서 타 업종보다 종사원 당 연간 매출액이 매우 높았으며, 면류전문점(5,197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4,401만 원),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4,523만 원), 비알콜음료점(4,124만 원)은 타 업종보다 종사원 1인 당 매출액이 낮았음.

### 업종별 종사원 당 연간 매출액



### 최저임금 인상 영향분석 결과

- 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제외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3.5%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업종 및 상권일수록 상대적으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업체 간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상권별로는 재래시장(4.9%)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저밀도주거지(4.6%), 일반상업지(4.4%)가 추가부담률이 비교적 높았고 유흥상업지(1.5%), 대학 및 학원가(2.9%)의 경우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비교적 낮았음.
  - 업종별로는 한식 중 육류전문점(5.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5.2%), 치킨전문점(5.8%), 비알콜음료점(5.8%)이 상대적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높았으며 일식(2.5%), 제과점(3.1%), 주점(1.2%)의 경우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비교적 낮았음.

-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크게 나타남.
  - 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제외했을 경우,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률은 5.5%로, 독립운영업체의 2.5%에 비해 크게 높았음.

### 영업형태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단위: %, 만 원

구분	2017 인건비 (A)	2018인건비 ('17대비 6.5% 상승기준) (B)	최저임금 인상시 2018 인건비(C)	추가부담률 (C/B-1)
전체	6,326	6,737	6,975	3.5%
프랜차이즈	5,858	6,238	6,581	5.5%
독립운영	6,515	6,938	7,133	2.8%

### 기존 통계와의 차별성

- 최근접매칭 후에도 프랜차이즈의 경영성과는 독립운영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접매칭 이후 프랜차이즈의 연간 매출액 평균은 19,632만 원으로 독립운영업체의 17,207만 원보다 높았음
  - 최근접매칭 이후 프랜차이즈의 연간 영업이익 평균은 8,111만 원으로, 독립운영업체의 4,435만 원보다 약 82% 높아 다소 큰 격차를 보임.
- 하지만 실제 외식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프랜차이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함.
  -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는 프랜차이즈의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맹비를 계산할 시 외식업에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판정할 수 없음.
  - 분석 결과 유사한 업종, 상권, 사업장면적에서 동일한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연평균 추가 이윤은 약 3,676만 원으로 계산되나,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고려하면 폐업까지 프랜차이즈로 발생하는 추가 이윤으로 인해 가맹비를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프랜차이즈는 주로 종사원 1인 당 인건비를 낮게 지출하며 1인분 조리 당 투입되는 식재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의 샘플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의 1인 당 지급 인건비는 1,630만 원으로, 1,808만원인 독립운영업체의 90.2%수준임.
  - 고객 1인 당 투입되는 식재료비는 한식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독립운영업체 대비 62.4%수준, 중식의 경우 59.1%, 일식의 경우 56.7% 수준임.

### 요약 및 시사점

- 제과점, 일식의 경우 타 업종보다 높은 경영성과와 생산성지표를 나타내며,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비알콜음료점,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은 낮은 경영성과와 생산성지표를 보임.
- 일식, 제과점과 같이 경영성과나 생산성지표가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알콜음료점, 치킨전문점과 같이 경영성과나 생산성지표가 낮은 업종은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 상승이 업종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독립운영업체보다는 프랜차이즈의 인건비 부담 상승률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프랜차이즈를 일정 수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프랜차이즈는 주로 종사원 1인 당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1인분 조리 당 투입되는 식재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자정보

안동환 교수(02-880-4729), dha@snu.ac.kr

김관수 교수(02-880-4727), kimk@snu.ac.kr

임정빈 교수(02-880-4721), jeongbin@snu.ac.kr

장도환 연구보조원 (02-880-4732), zzangdh1@snu.ac.kr

이승훈 연구보조원 (02-880-4735), owlshawn@snu.ac.kr